

1920년대 민족주의 운동과 기독교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 기독교사회윤리의 관점에서

김명배 (숭실대학교 부교수)

I. 들어가는 말

II. '민족주의'의 정의와 한국의 '민족주의' 운동의 기원

1. '민족주의'의 정의
2. 한국의 '민족주의' 운동의 기원

III. 1920년대 '민족주의' 진영의 독립운동론

1. 1920년대 초 우파 '민족주의' 진영의 실력양성론
2. '민족주의 우파'(타협주의자)의 자치론
3. '민족주의 좌파'(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민족협동전선'과 신간회 운동

IV. 1920년대 민족주의 운동에 나타난 기독교민족주의자들의 사회윤리

1. '정의'와 '인도'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치 윤리
2. 실력양성론에 입각한 개신교적 자본주의 경제윤리
3. '사회개조론'과 '사회복음'에 입각한 사회변혁 윤리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9.43.04>

• ABSTRACT •

A Study on the Relation of Nationalism and Christianity in the 1920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Social Ethics.

Prof. Kim Myung Bae(Soongsil Universit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ism and Christianity in the 1920s. When Korea became a Japanese colony in 1910, The Korean national movement is divided into two groups: Sillyeogyangseonglon(실력양성론) and Mujangtujaenglon(무장투쟁론) During the 1920's, the former was to develop into 'the right-wing of bourgeois nationalist movement' that claims to Products encouraging movement, Educational movement by founding school in various levels, and Self-government movement. The latter was developed as 'the left-wing of bourgeois nationalist movement' that proclaims to Political struggles and absolute independence based on the People. During the 1920's, the right-wing of nationalist experienced the division of the forces through the culture governing policy of the Japanese imperialism. In the course of this division, the right-wing of nationalist movement wanted to explore each of the theory of the state construction through mutual solidarity and interconnectedness. In this process, Christian nationalists have adopted the principle of democracy based on political justice and humanitarianism after the 3.1 movement as the basic principle of national movement, as they adopted Protestant capitalist economic ethics, socially pursued social transformation ethics based on Social remodeling and social gospel.

Key words: 1920's Nationalism, 3.1 Movement, Christian Nationalists, Theory of Nation Establishment, Social Ethics

I. 들어가는 말

19세기 후반부터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 까지 한국 민족주의 운동의 최대의 과제는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었다. 19세기 후반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속에서 국권이 상실되어 가는 역사적 위기 속에서 우리 민족운동의 최대의 과제는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기 우리 민족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여 민족주의 운동에 실패하였다. 신민회와 같은 예외가 있기는 하였지만, 대한제국기의 민족주의 운동은 군주주권과 국민주권 개념을 구별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일제 식민지 시기에는 우리 민족주의 운동의 최대 과제는 잃어버린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초기 유립을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은 여전히 군주주권의 회복을 주장하는 복벽주의(復辟主義) 운동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군주주권을 회복하려는 복벽주의 운동은 사라지고, 국민주권에 근거한 민주 공화제 정치체제가 시작되었다. 이후 우리 민족주의 운동은 무장투쟁론, 외교론, 실력양성론 등을 통한 국민의 주권회복과 이에 근거한 정치체제로써 공화주의적 국가건설론을 추진하였다. 물론 3.1운동 이후의 민족주의 운동을 국민주권회복을 통한 공화주의 정치체제 노선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이 시기 국내외에서 전개된 민족주의 운동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운동으로 불리는 소위 좌익 노선과 일반적으로 민족주의 운동으로 불리는 우익 노선으로 나누어진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좌익과 우익 세력은 독립운동 전선에 있어서 노선의 차이로 전력이 분산되기도 하였지만, 양진영 모두 민족주의 운동의 일차적 과제로 주권회복을 목표로 하였다는 점에서 일치하였다.¹⁾

이러한 한국의 민족주의 운동과 관련하여 한국 근대현사학계는 일제 식민지 시대하의 민족운동의 성격과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의들을 해왔다. 첫째로 민족주의 운동의 실체를 ‘이데올로기’ 혹은 ‘사회계층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둘째로는 각 민족주의 세력들의 독립운동 방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민족 운동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로 민족주의자들이 독립 후에 어떠한 국가를 건설할까하는 국가건설론에 대한 연구로 민족운동의 성격과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²⁾

그런데, 이와 같은 주제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근대사학회는 한국기독교가 민족주의운동에 참여한 사실에 대하여 인색한 평가를 내려왔다. 의도적으로 기독교인들의 민족주의 운동을 소홀히 여기거나 폄하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본 논문은 민족주의운동에 기독교 세력이 어떻게 참여하였는지, 민족주의 운동에 기독교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기적으로 1920년대 초에서 말까지 국내 민족주의 운동에 나타난 기독교민족주의자들의 정치, 경제, 사회윤리가 무엇이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먼저 제 2장에서 민족주의 운동의 정의와, 한국의 ‘민족주의’ 운동의 기원에 대해 살핀다. 제 3장에서는 국내 민족주의 운동세력의 실체와 독립운동 방략을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제 4장에서 기독교사회윤리의 관점에서 기독교민족주의 세력이 민족주의 운동에 참여하여 그들이 실현하고자 했던 정치, 경제, 사회윤리를 규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민족주의 세력의 역사·사회참여의 윤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

1) 강만길, “독립운동과정의 민족국가건설론”, 『한국민족운동사론』(서울:한길사, 1985), 112-13.

2) 김명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정에서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의 역할”, 한국교회사학회, 『한국교회사학회지』 제 51집(2018, 12), 108; 오일환 외,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기독교』(서울:한중국제우호협력교류재단, 2019), 145.

보고자 한다.

II. ‘민족주의’의 정의와 한국의 ‘민족주의’ 운동의 기원

1. ‘민족주의’의 정의

‘민족주의’(Nationalism)란 18-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어 20세기 전세계적으로 전파되어 전개된 하나의 역사적 운동이었다. 이것은 원래 근대에 만들어진 사회과학적 용어로 저항과 변혁의 논리를 포괄하는 개념이었다.³⁾ 역사학에서 민족주의라는 용어는 개인적인 애국심이나 감정에서부터 대중적인 정치현상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게 사용되어져 왔다. 로빈슨에 의하면, 민족주의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졌다.

첫째로는 민족주의를 감정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즉, 감정에 기초한 정치적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지, 이를테면 외부 세력에 대한 감정적 반작용, 전통주의자들의 개혁운동, 반(反)식민주의 등이 이런 형태의 민족주의라는 것이다. 둘째로 민족주의를 정치·사회적 발전을 연구하는 포괄적인 학술연구의 배경의 중심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즉, 민족주의를 민족국가의 출현과의 상관관계 혹은 근대화의 확산과의 밀접히 상관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셋째는 민족주의를 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즉, 민족을 국민의 최상의 집합체로 고양시키거나 강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민족주의를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를 지닌 민족주의 이론가들은 기존의 국가를 재건하거나 전복할 때, 혹은 기존국가로부터 새로운 독립 국가를 세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벌이거나, 하나의 민족국가를 창조하는 목표를 향해 집단성을 발휘할

3) Hans Kohn, *Nationalism : Its Meaning and History*, New Jersey, D. Van Nostrand Co., Inc., (1965), 4; 김창수, “일제하 한국민족운동의 역사적 위상”,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의 역사와 미래』(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9), 12.

때 ‘민족주의’를 그 정치 강령으로 내세운다.⁴⁾

이러한 민족주의의 의미 가운데 이 연구는 민족주의를 국가의 자주와 독립을 유지하거나 확보하기 위한 강령을 창출하여 민족의 주체성을 추구하거나 표현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 운동으로 이해한다. 또한 민족주의를 민족의 주체성을 창조하거나 고양시키고, 집단적 감정을 정치적 행동으로 동원하는 민족운동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 한국의 ‘민족주의’ 운동의 기원

일제하 민족운동 세력은 일반적으로 우파 ‘민족주의 계열’과 좌파 ‘사회주의 계열’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일제하 우파 ‘민족주의’의 기원은 한말의 자강운동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⁵⁾ 한말의 자강운동은 한국민족이 주체가 되어 교육과 실업을 진흥함으로써 문화적, 경제적 실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부국강병을 달성함으로써 장차 국권을 회복하려는 운동이었다. 그러므로 한말의 자강운동은 일제하 우파 민족주의 운동논리의 토대였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의 자강운동은 1890년대 말 이래로 개화지식인들 사이에 크게 유행하던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사회진화론의 우승열패, 약육강식의 이론을 국제사회에까지 적용시켜 치열한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실력을 갖추는 것, 즉 자강을 이루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이었다. 이러한 관점의 실력양성론은 결과적

4) Micheal Edson Robinson, *Cultural Nationalism in Colonial Korean(1920-25)*,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1988), 26-28. 민족주의 이론가들은 집단적 주체성을 문화적 가치, 종교 및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민족적 상징들로 정의한다. 이러한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로빈슨은 민족주의를 종족민족주의(Ethno Nationalism), 문화민족주의(Cultural Nationalism), 저항민족주의, 통합민족주의(Integral Nationalism), 창조적 민족주의(Creative Nationalism)의 여러 차원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오일환 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기독교』, 143-144 재인용.

5) 노경채, “국외민족운동의 노선과 이념의 변화과정”, 『3.1민족해방운동연구』(서울:청년사, 1989), 489-507.

으로 한국은 아직 독립할 역량이 없으므로 먼저 실력을 기른 후에 독립을 도모하자는 이른바 ‘선실력양성, 후독립론’(先實力養成, 後獨立論)이었다.⁶⁾

그러나 한말의 자강운동론자들이 모두 ‘선실력양성, 후독립론’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1909년경 자강운동론자들 가운데 신채호(申采浩)를 중심으로 한 『대한매일신보』의 신민회 좌파계열은 ‘선실력양성론’이 지닌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독립론’(先獨立論)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들은 독립을 가져다줄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무장독립투쟁 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선실력양성론’을 포기하였다. 더 나아가 이들은 무장독립투쟁을 위해 중국의 만주, 러시아의 연해주 등 해외로 망명하여 독립군기지건설운동을 펼쳐나갔다. 그러나 자강운동론자들 가운데 청년학회를 중심으로 한 신민회 우파계열은 여전히 실력을 기른 후 독립을 도모하자는 ‘선실력양성론’을 고수하였다. 결과적으로 한말의 자강운동론자들은 신민회 내의 우파와 좌파계열로 분화되었다.

III. 1920년대 ‘민족주의’ 진영의 독립운동론

1. 1920년대 초 우파 ‘민족주의’ 진영의 실력양성론

1919년 3·1운동 이후 국내외의 민족운동은 무장투쟁을 통한 ‘절대독립론’과 ‘외교론’, ‘만세시위운동’ 등의 형태로 지속되었다. 상해에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독립운동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였고, 구미지역에서는 외교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리고 평화적인 시위나 만세운동, 외교만으로는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민족주의자들은 만주지역의 독립군에 가담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운동들은 모두

6) 노경채, “국외민족운동의 노선과 이념의 변화과정”, 489-507.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서구열강의 한국독립에 대한 지원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구열강은 한국인들의 기대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한국인들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력을 양성하는 길밖에 없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3·1운동 전후하여 ‘민족자결운동론’에 밀려 주춤하던 ‘실력양성론’이 다시 부활하게 되었고, 1920년대 초반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문화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⁷⁾

그런데 당시 청년운동, 교육진흥운동, 물산장려운동, 민족성개조운동 등을 통칭했던 1920년대의 ‘문화운동’은 서구에서 유입된 사회진화론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우리 사회의 근대적 발전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민족 독립의 토대를 마련하지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특히, 1920년대 초반 우파 민족주의 진영이 경제 분야에서 전개한 물산장려운동은 실력양성론에 기초한 대표적 문화운동이었다. 1922년 6월 20일 서북지역 기독교계의 대표적 인사인 조만식과 평양YMCA는 평양YMCA 회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1937년 일제에 의해 해산될 때 까지 다양한 강연회를 개최하여 토산품의 애용을 선전하였다.⁸⁾ 평양물산장려회는 평양의 상공업자, 일반사회단체와 더불어 각 교회의 청년회와 부인회가 민족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⁹⁾

한편, 우파 민족주의 진영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시민운동단체인

7) 황선희, “한국민족주의운동의 역사적 평가-국내민족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의 역사와 미래』(서울: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9), 226-27. 다시 말하면, 1920년대 초반 민족의 실력양성을 위하여 전개된 ‘문화운동’은 3·1운동 이후 각종 외교운동의 좌절, 사회진화론의 재 대두, 개조론 등 각종 외래사조의 영향, 그리고 일제의 산업정책과 이에 따른 민족자본가계급의 동요 등을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다.

8) 강영심, “조선물산장려운동의 전개와 성격,” 국사편찬위원회, 『국사관 논총』 47, 1993. 154-155;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 연구』(서울: 혜안, 2001), 258-262.

9) 『동아일보』, 1923. 2.9, 2.21, 1924. 2.8, 1925. 1.26, 1927.2.18;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 연구』, 263.

YMCA의 물산장려운동을 넘어 토착자본가의 자본축적을 계기로 조선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설립운동으로 나아갔다.¹⁰⁾ 당시 평양의 대표적 기업인 양말공업과 고무공업은 비록 작은 규모의 자본이었으나, 1923년부터 1925년까지 평양지역에서 일본기업보다 우위를 차지하였다.¹¹⁾

하지만 물산장려운동을 비롯한 문화운동은 일제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전개되어 일제의 식민통치에 직접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적극적인 항일 투쟁과는 거리가 멀었고, 일제의 탄압에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었다.¹²⁾ 결과적으로 이 운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독립운동보다는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한 실력양성을 도모하고,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먼저 실력을 키우자는 일종의 ‘독립준비론’이었다.¹³⁾

2. ‘민족주의 우파’(타협주의자)의 자치론

1920년대 중반이 되면서 민족주의 계열의 일부 지식인, 지주, 자본가들 중에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그 밑에서 정치적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등장하였다. 「동아일보」의 김성수, 천도교의 최린, 그리고 이광수 등이 그 대표적 인물들이었는데, 이들은 일제의 이른바 ‘문화통치’에 기대를 걸면서 한국인의 ‘자치권’과 ‘참정권’을 획득하려는 운동을

10) 오미일, “1910-1920년대 평양지역 민족운동과 조선인 자본가층”, 『역사비평』, 1988 여름, 298-299.

11) 강만길, “독립운동과정의 민족국가건설론”, 『한국민족운동사론』, 185-193을 참조하라;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 연구』, 266.

12) 한철호 외 4인, 『한국사』(서울: (주) 미래엔, 2010), 246.

13) 황선희, “한국민족주의운동의 역사적 평가-국내민족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의 역사와 미래』(서울: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9), 226-27. 다시 말하면, 1920년대 초반 민족의 실력양성을 위하여 전개된 ‘문화운동’은 3·1운동 이후 각종 외교운동의 좌절, 사회진화론의 재 대두, 개조론 등 각종 외래사조의 영향, 그리고 일제의 산업정책과 이에 따른 민족자본가계급의 동요 등을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다.

전개하였다.¹⁴⁾ 그리하여 이 ‘자치론’의 대두로 말미암아 국내의 우파 민족주의 진영은 이를 지지하는 ‘민족주의 우파’와 이를 반대하는 ‘민족주의 좌파’로 분열하게 되었다.

1923년 경제적 실력양성운동의 대표적 운동인 물산장려운동이 실패로 귀결되자, 이제 정치적 측면의 실력양성운동으로서 자치운동론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하면, 민족자본의 보호육성을 위한 문화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민족 자본기들과 그들을 대변하는 개량주의적이고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은 경제적 실력양성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치권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자치운동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광수는 1924년 1월 「동아일보」에 “민족적 경륜”이라는 논설을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그러면 지금의 조선 민족에게는 왜 정치적 생활이 없는가?.....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이래로 조선인에게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것이 첫째 원인이자. 또 병합이래로 조선인은 일본의 통치권을 승인해야만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활동, 참정권, 자활권 운동 같은 것은 물론이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독립운동조차 원치 아니하는 자는 강렬한 절개의식이 있었던 것이 둘째 원인이자.....지금까지 해 온 정치적 운동은 모두 일본을 적대시하는 운동뿐이었다. 이런 종류의 정치운동은 해외에서나 할 수 일이고, 조선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¹⁵⁾

이러한 자치운동의 모색에는 천도교 신파, 동아일보 계열 등이 참여하였고, 자치운동단체 연정회를 결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상해판 <독립신

14) 한철호 외 4인, 『한국사』, 246.

15) 「동아일보」, 1924. 1;2-6.

문)은 자치론을 독립운동의 탈선으로서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비난하였다. 조선노동총동맹, <개벽>, 동경유학생학우회 등도 이를 일제와의 타협 운동으로 비난하자, 결국 연정회의 결성 움직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제 1차 연정회 설립운동이 실패한 후 '민족주의 우파' 세력은 또 다시 자치운동단체의 조직을 준비하였는데, 이것이 제 2차 연정회 설립운동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사회주의자들이 규탄하고 나서자, 참여하기로 예정자들이 대거 이탈하여 제 2차 연정회 결성도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민족주의 계열은 결정적으로 '민족주의 우파'와 '민족주의 좌파'로 분열되었으며, '민족주의 좌파' 계열이 사회주의 세력과 연합하여 신간회를 결성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¹⁶⁾

1920년대 중반이 되면서 국내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식민지 지배를 위협하자, 일부 일본의 어용지식인들은 조선의 민족운동을 분열시켜 식민지 지배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조선총독 사이토(齋藤實)에게 조선에서 자치론의 필요성을 건의하여 그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게 되었다. 특히 1925년 7월 일본의 <아시아헤럴드>지 주간으로 있던 즈모토 모토사다(頭木元貞)가 일본정부가 조선의 자치허용을 고려한다는 발언과 같은 해 11월 조선총독부 기관지 <경성일보> 사장 스에지마 미치마사(副島道正)가 자치제의 실시를 송진우, 김성수, 최린 등과 협의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자치론자들은 천도교 신파와 동아일보의 간부들, 안창호의 수양동우회 등을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해 나아갔다. 이들은 '독립운동을 위한 준비단계로서의 자치권 획득'과 '경제적 실력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정치권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자치운동을 추진하였던

16) 유준기, "일제하 한국민족운동에 있어서 민족주의 유형", 『한국민족운동의 역사와 미래』 (서울: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9), 52-53.

것이다.¹⁷⁾

이와 같이 1920년대 ‘민족주의 우파’의 타협주의 세력은 1920년대 중반이 되면서 독립국가의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일제와 타협하여 자치권과 참정권을 얻으려는 움직임을 펼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운동은 1930년대 초까지 지속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치운동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민족주의 세력의 분열만을 가져왔다.

3. ‘민족주의 좌파’(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민족협동전선’과 신간회 운동

일제하 ‘민족주의 좌파’의 기원은 한말의 대한매일신보계열 등 신민회 좌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1920년대 중반 민족주의 운동이 사회주의운동의 도전을 받고, 민족주의운동 내부에서 자치론과 같은 타협주의적인 주장이 대두함과 함께 형성되었다. 이들은 자치운동의 대두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력을 결집해 나갔고, 이들 세력의 주요 근거지는 조선일보사와 천도교 구파였다.

1925년 4월에 들어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을 계기로 개량주의적 민족운동이 대두되자, ‘민족주의 좌파’는 자치운동을 ‘관계적 타협운동’으로 규정하였다. 이들은 자치운동에는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의 변화가 숨겨져 있다고 파악하였다. 즉, 자치운동은 한반도에 대한 장기지배 음모와 중국 대륙으로 진출계획, 그리고 소련의 동진 등을 고려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민족의 독립과 반일 투쟁을 위하여 사회주의자들과의 협동을 모색하였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하였다. 특히 자치운동을 비판하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노선을 주장한 기독교민족주의자들인 이상재, 안재홍 등은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

17) 유준기, “일제하 한국민족운동에 있어서 민족주의 유형”, 51.

다.¹⁸⁾

‘민족주의 좌파’ 세력은 1926년 자치운동이 보다 구체화되자, 이를 지지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세력과 연대하여 ‘민족단일당’을 결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민족주의 좌파’ 세력은 1926년 2월 조선공산당 강달영과 함께 민족단일당으로 ‘국민당’을 조직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해 하반기가 되자 ‘민족주의 좌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인 안재홍, 홍명희, 신석우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참다운 민족당을 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1926년 3월 천도교 구파, 조선일보계, 조선공산당의 유력인물들이 ‘국민당’ 형태의 협동전선 결성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천도교 간부 최린이 ‘타협주의적’ 민족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도교를 운동의 중심기관으로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여 연기되었고,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이 6.10만세운동으로 대부분의 공산주의자들이 검거되자 무산되고 말았다. ‘국민당’ 결성이 와해되자, 서울청년회(YMCA) 계열과 조선물산장려회 계열은 1926년 7월 조선민흥회를 발기하고 제한적 범주의 협동전선을 표방하였다. 조선민흥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일부가 참여하였으며, 이후 조직원 전원이 신간회에 참여하여 신간회 결성의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¹⁹⁾

이러한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 계열의 협동전선의 결과 1927년 신간회가 탄생하였다. 신간회는 이상재를 회장으로, 홍명희를 부회장으로 하여 언론계 대표 신석우, 안재홍, 불교계 대표 한용운, 천도교계 대표 권동진, 기독교계 대표 이승훈, 사회주의계 대표 한위건 등 비타협적 좌우익 대표 28명의 발기에 의해 결성되었다. 신간회는 그 강령에서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 한다”고 천명하여 연정회와 같은 자치운동에 반대함을

18) 유준기, “일제하 한국민족운동에 있어서 민족주의 유형”, 52.

19) 유준기, “일제하 한국민족운동에 있어서 민족주의 유형”, 65.

분명히 하였다.²⁰⁾ 1927년 2월 15일 조선일보사를 중심으로 창립준비 작업을 거쳐 서울기독교청년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거행한 신간회는 성립 당초 ‘민족단일당’ 혹은 ‘민족단일당의 매개형태’ 등으로 이해된 개인본위의 조직이었다. 그러나 조선노동총동맹, 조선청년총동맹 등의 대중운동단체들이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회원과 지회가 급속히 확대되어 1931년 해소될 때 까지 143개 지회와 4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는 ‘일제하 최대의 민족운동단체’로서 활동을 하였다.²¹⁾

하지만 신간회 운동은 1927년 말부터 송진우 같은 자치론자, 수양동우회 같은 민족주의 우파가 신간회에 침투해 들어오고, 1929년 광주학생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한 ‘민중대회’ 사건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 신간회는 천도교의 최린 중심의 세력이 주장하는 자치운동과 협력하여 합법운동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신간회 본부의 합법노선으로의 전환은 대체로 사회주의 세력이 우세했던 각 지회에서 해소론(解消論)이 대두하는 원인이 되었다. 결국 1930년 2월 부산지회가 처음으로 해소론을 제기한 이래 이원, 평양, 경서, 인천, 단천, 홍원, 성진, 칠곡, 서울지회 등이 잇따라 해소결의를 하여 신간회 운동은 소멸되었다.²²⁾

그러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좌파나 우파가 해방 후 사회체제 건설에 있어서 입장이 다르지만, 민족해방의 단계까지는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주의자와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족공동전선을 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일제와의 독립투쟁에 있어서 ‘민족단일당’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간회를 ‘민족단일당의 매개형태’로 간주하였다. 결과적으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의 해소론을 반대하면서 현재의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신간회의 틀 내

20) 강만길, 『한국현대사』(서울:창비, 2006), 110.

21) 유준기, “일제하 한국민족운동에 있어서 민족주의 유형”, 66.

22) 강만길, 『한국현대사』, 112.

에서 다시 좌우파가 ‘신탁동’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들은 신간회 해소 이후에도 독립국가건설을 위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협동전선의 필요성을 여전히 주장하였고, 그러한 단체를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V. 1920년대 민족주의 운동에 나타난 기독교민족주의자들의 사회윤리

1. ‘정의’와 ‘인도’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치 윤리

1920년대 들어와 한국의 기독교 민족주의 세력은 1910년대 일제하 무단통치의 이론적 기반이었던 사회진화론적 강권주의와 침략주의를 비판하면서 정의와 인도에 입각한 민주주의 신국가건설이라는 정치윤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안창호는 이미 1916년 미국에서 대한인국민회를 창립하면서 “우리는 다만 정의 인도만 표준하고 한층 두층 올라갈진대 비록 1만 마귀가 앞에서 저해한들 어찌 우리의 한 걸음을 방해하리오”²³⁾라 하여 정의 인도를 뜻대삼아 착실히 독립의 실력을 준비해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 인도론은 기독교 세력이 주도한 3.1운동의 과정에서 더욱더 논리적 틀을 확립하였다. 3.1 독립선언서는 “세계개조의 신기운에 순응 병진하는 정의와 인도의 실현, 인류공동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으로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전망하고,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 신국가의 건설을 지향할 것”²⁴⁾이라고 선언하였다. 기독교 세력은 『독립

23) 안창호, “우리 국민의 진화의 순서”(1916, 2) 『안도산전서(중)』(서울:범양출판사, 1990), 69;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의 연구』(서울: 혜안, 2001), 118에서 재인용.

24) 『독립선언서』(1919. 3. 1);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의 연구』, 122에서 재인용.

선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그 내용을 내면화하여 독립운동의 논리로 정립해 나갔다. 1919년 3월 12일 장로교 목사 김백원 등 12인은 당시 조선총독 하세가와에게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²⁵⁾

금일 세계대세는 기히 무단적 실력은 기하고 정의 인도가 내한 사 아니뇨. 각하, 민족이 기히 무력으로써 자립치 아니하고 인도 정의로써 자존자보케 된 이상은 금일 오동에 독립선언이 하에 모순할 바 유하며 하에 괴리될 바 유하리오. 그리하여 동양평화가 조선독립을 위하여 익익 확고할 사 아니뇨.²⁶⁾

이들의 주장은 세계의 대세가 무력이 아니라, 정의와 인도으로써 민족이 자립할 시기가 도래할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이후 정의와 인도론은 기독교의 민족주의 운동의 기본원리가 되었다. 그리하여 1920년대 기독교 세력은 당시 국제정세를 정의와 인도론을 근거로 이해하였고, 이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신간회 운동에 참여한 YMCA 총무 신흥우는 1921년 말 워싱턴 군축회의의 결과 민족자결주의가 퇴조한 것 같지만 세계평화와 정의 인도는 결단코 거짓이 아니라고 확언하였다.²⁷⁾ 그는 제 1차 세계대전을 정의와 인도에 의한 민주주의의 승리로 이해하였고, 바야흐로 세계개조의 국제질서가 도래하였다고 보았다.²⁸⁾

신흥우와 더불어 기독교사회주의자로 신간회에 참여한 이대위도 국가 권력이 갖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비판하면서, 인민의 권리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중요시 하였다. 그는 민족주의와

25)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의 연구』, 122-124.

26) 김백원, 문일평 등, 「12인등의 장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서울:한들, 1997), 129-130;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의 연구』, 123에서 재인용.

27) 장규식, 『일제하 한국기독교민족주의의 연구』, 124에서 재인용.

28) 김권정, 『한국기독교 민족운동론과 민족운동』(서울:국학자료원, 2015), 54.

더불어 민주주의를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에 맞설 보편적 논리로 이해했다.²⁹⁾ 이처럼 세계평화, 정의, 인도, 민주주의로 요약되는 세계개조에 대한 이상과 전망은 한국의 기독교 민족주의 세력이 1920년대 민족운동에 있어서 일관되게 견지하는 기본원리였다.³⁰⁾ 특히 기독교 민족주의 세력은 1920년 초기의 민족주의 운동, 중기의 민족주의 좌파의 민족협동전선과 신간회 운동에 참여하면서 정의와 인도에 입각한 민주주의 신국가건설을 일관되게 견지하였고, 다른 사회단체들에게도 독립운동 방략과 신국가건설론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2. 실력양성론에 입각한 개신교적 자본주의 경제윤리

1919년 말에 열린 파리강화회의와 1921년 말에 개최된 워싱턴 군축회의는 안타깝게도 일제 식민통치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한국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기독교민족주의 세력은 독립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다시금 실력양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조선독립은 당분간 절망적임으로 우리들 조선인은 힘써 교육, 산업과 문화적 시설에 열중해 실력양성에 주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³¹⁾고 하며 실력양성론을 강조하였다. 특히 1920년대 일제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하자, 기독교민족주의 세력은 일제 조선총독부가 허용하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점진적 실력양성론’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민족주의 세력은 민족 독립운동의 방식으로 점진적 실력양성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민족의 경제적 자립을 모색하는 물산장려운동을 추진하였다.

29) 이대위, 「사회주의와 기독교의 귀착점이 어떠한가?」 『청년』, 1923년 9월호, 10; 김권정, 『한국기독교 민족운동론과 민족운동』, 54.

30)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의 연구』, 125.

31) 김권정, 『한국기독교 민족운동론과 민족운동』, 55에서 재인용.

조선물산장려운동은 평양의 YMCA와 서울의 YMCA가 중심이 되어 전개하였는데, 이 운동은 일제 식민통치 시기 기독교민족주의자들이 전개한 대표적인 자본주의 경제운동이었다. 평양물산장려회는 1922년 6월 20일 평양 YMCA의 총무인 조만식에 의해 발족되었다.³²⁾ 평양물산장려회는 그 설립취지서에서 “조선물산장려와 상공업의 진흥을 통해 삼천리가 삼천만 민족의 진개(眞個)낙원, 진개(眞個) 에덴이 되기를 지성으로 갈망하는 바로다.”³³⁾고 하여 그 기독교적 배경을 말하고 있다. 평양물산장려회는 교회의 청년회와 부인회, 상공업자, 일반사회단체회원들을 대상으로 토산품 애용을 선전하고 강연회를 개최하여 민족경제자립운동을 전개하였다.³⁴⁾ 당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평양물산장려회는 물산장려, 상공업진흥, 생활개선이라는 자본주의 경제운동을 전개하여 지역 경제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한편, 기독교민족주의 세력은 토착자본가의 자본축적을 계기로 조선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설립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³⁵⁾ 특히 1923년부터 1925년까지 평양의 기독교 세력은 양말공업과 고무공업을 설립하여 평양 지역의 경제에서 일본인들보다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기도 하였다.³⁶⁾ 또한 평양의 기독교계는 개신교적 자본주의 경제윤리에 기초하여 근검저축 식산운동을 전개하였다.³⁷⁾ 1921년 12월 평양 YMCA의 중심인물들인 김

32) 강영심, “조선물산장려운동의 전개와 성격,” 국사편찬위원회, 『국사관 논총』 47, 1993. 154-155;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 연구』, 258.

33) 『동아일보』, 1920. 8.23

34) 『동아일보』, 1923. 2.9, 2.21, 1924. 2.8, 1925. 1.26, 1927.2.18;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 연구』, 263.

35) 오미일, “1910-1920년대 평양지역 민족운동과 조선인 자본가층,” 『역사비평』, 1988 여름, 298-299.

36) 강만길,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 연구』, 185-193 참조;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 연구』, 266.

37) 조기준,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서울:大旺社, 1977), 507-512.

동원, 조만식 등은 평양실업저금조합을 설립하였고,³⁸⁾ 물산장려운동의 실질적 지도자인 조만식은 1926년 10월 평양절약저금식산조합을 설립하여 조선의 토산품 애용을 장려하고, 술과 담배, 그리고 사치로 낭비되는 돈을 저축하여 산업에 투자하도록 하였다.³⁹⁾ 이와 같은 평양 기독교계의 기업설립운동, 근검저축식산조합과 금융기관의 설립운동은 조선인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부흥운동의 촉매제가 되었다.⁴⁰⁾ 이러한 기독교 세력의 경제운동은 실력양성을 근거로 한 자본주의 경제운동으로 금욕과 청빈 등을 덕목으로 한 개신교적 경제윤리의 실천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실력양성론에 터한 자본주의 경제윤리를 추구했던 기독교민족주의 세력이 사유재산의 전적인 자유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민족주의 좌파로 신간회에 참여한 기독교사회주의자 이대위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유재산제도를 최악을 발생시키는 근원으로 보고, 사유재산제도의 개선을 주장하였다.⁴¹⁾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제도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점을 비판하였으나, 이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1920년대 기독교민족주의 세력은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실력양성론에 입각한 개신교적 자본주의 경제윤리를 주장하였다.

3. '사회개조론'과 '사회복음'에 입각한 사회변혁 윤리

1920년대 전반 기독교계에는 정의·인도론에 입각한 세계개조론이 풍미하면서 '사회개조론'이 대두되었다. 특히 1920년대에 초 사회주의 세력

38) 「동아일보」, 1921. 9. 3.

39) 「동아일보」, 1926. 10. 3.

40) 「동아일보」, 1928. 12. 22;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의 연구』, 271- 273.

41) 김권정, 『한국기독교 민족운동론과 민족운동』, 56.

이 국내에 들어와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을 형성하고 이들에 의한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도전이 시작되자, 기독교계는 개인구원을 강조하였던 신학적 분위기를 반성하고, 민족적, 사회적 책임을 수행을 위해 ‘사회개조론’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사회개조를 위한 일반원칙으로 호조주의, 평등주의, 노동주의를 제시하면서, 개인의 인격의 개조를 위해서는 먼저 그 걸림돌이 되는 열악한 사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았다.⁴²⁾

서울 중앙YMCA의 초대회장이며 기호지역의 저명한 기독교 평신도 지도자 이상재는 근대화, 서구화의 논리로 기독교계가 받아들인 ‘사회진화론’은 ‘적자생존’과 ‘우성열패’를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악’임을 지적하였다. 오히려 그는 불합리한 사회현실에 대한 개조가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회개조’ 활동에 책임의식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³⁾ 또한 오산학교의 설립자로 서북지역의 대표적인 기독교계 민족주의자 남강 이승훈은 ‘교회’를 단순히 종교적인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 한국인의 교육과 산업을 일으키는 현장으로 보았다.⁴⁴⁾ 그는 교회가 개인의 영적구원만이 아니라, 물질적, 산업적 차원에서 사회개조를 통해 사회적 구원을 이루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1920년대 전반에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사회개조론’을 수용한 것은 개인의 영적인 구원보다 사회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사회구원’을 더 절실한 과제로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⁴⁵⁾

한편, 1925년 경 이후 한국의 기독교계에는 새로운 사상이 수용되었다. ‘기독교사회주의’와 ‘사회복음주의’가 그것이었다. 이 두 사조들은 당시 사

42)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의 연구』, 185.

43) 이상재, “上梓의 뜻은 如何하뇨”, 『百牧講演』 2(박문서원, 1921), 138; 김권정, 『한국기독교 민족운동론과 민족운동』, 58에서 재인용.

44) 「동아일보」, 1922. 7. 22; 김권정, 『한국기독교 민족운동론과 민족운동』, 61.

45) 김권정, 『한국기독교 민족운동론과 민족운동』, 58.

회주의 계열의 비판과 도전에 직면하여 기독교운동의 새 방향과 방법론을 모색하던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계기를 제공해주었다. 특히, 192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사회주의자 하천풍언의 영향은 받은 강명석과 김강은 <공상적 경제사상>과 <기독교사상연구> 등의 잡지에 사회경제적 ‘공산적 기독교’의 지향을 담은 글들을 게재하여⁴⁶⁾ 한국기독교계에 기독교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였다. 또한 기독교사회주의자 이대위는 예수를 사회개량가, 혁신가, 혁명가로 표현하여 예수와 사회주의자와 유사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⁴⁷⁾ 이러한 배경 하에서 ‘민족협동전선’이 대두되고, 민족주의 진영의 좌파와 사회주의 계열이 참여하여 신간회가 창립되었다.⁴⁸⁾

한편, 1928년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국제선교대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는 한국 기독교계가 농촌운동을 비롯한 사회개조운동을 펼치게 되는 획기적인 분기점이었다. 이 대회는 기독교인들이 제 1차 세계대전을 반성 하면서 20세기에 들어와 세계선교를 통해 확장된 기독교세계 내에서 야기된 선교국과 피선교국간의 관계, 주일학교교육,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인종문제, 세계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촌인구와 그에 따른 문제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다.⁴⁹⁾ 특히 이 대회는 기독교의 실제화와 사회화를 주요한 신학적 주제로 삼았다.⁵⁰⁾ 뿐만아니라, 이 대회는 기독교가 “개인구원은 물론 사회구원을 위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구원 사역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의 실제화와 사회화가 달성되지 않은

46) 김권정, 『한국기독교 민족운동론과 민족운동』, 94-95.

47) 이대위, “사회혁명의 예수”, 『청년』(1928. 6), 8.

48) 김권정, 『한국기독교 민족운동론과 민족운동』, 132. 흥업구락부의 안재홍, 백관수, 유억겸, 이관용과 수양동우회의 조병옥, 조만식 등은 1925년 9월 13일 <조선사정연구회>를 만들고 신간회 운동에 참여하였다.

49) 양주삼, “예루살렘 회의의 특색”, 『기독교신보』, 1928.7.11.

50) 김활란, “예루살렘대회와 금후 기독교”, 『청년』, 1928년 11월호.

것이라 보았다. 그러므로 이 대회를 계기로 한국기독교는 ‘사회복음주의’를 받아들여 이후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을 정립하였던 것이다.⁵¹⁾

그래서 예루살렘 대회에 참석한 한국 대표들은 서구 기독교세계에서 1920년대부터 일어난 ‘사회복음주의’를 한국기독교계에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사회복음주의를 받아들인 신흥우 등 민족주의 좌파 계열의 기독교지도자들은 개인구원에 천착하는 보수적이고 교리적 신앙노선에서 벗어나 당시 기독교적 사랑을 통한 사회적 정의 실현 차원에서 한국 사회문제들을 접근하였다. 이들은 신간회를 비롯한 민족주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이다.⁵²⁾ 이처럼 1920년대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은 사회개조론과 사회복음에 입각한 사회변혁윤리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V. 나가는 말

1910년 일제하 국내 민족운동 세력은 일반적으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우파 ‘민족주의’는 실력양성론을 근거로 하여 교육과 산업의 진흥 등을 통한 국권회복운동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었다. 1910년 일제에 의하여 한일합방이 되자, 이들은 여전히 실력양성노선을 고수하지는 입장을 지닌 세력들과 ‘애국주의’의 계몽운동을 계속하면서 이에 더하여 무장투쟁노선으로 전환하는 입장을 지닌 세력으로 분화되어갔다. 이러한 분화과정에서 1920년대 들어와서 전자의 입장은 몰산장려운동, 각종 학교설립운동, 자치운동 등을 주장하는 개량주의적 운동인 ‘민족주의 우파’로 발전하게 되었고, 후자의 입장은 대중에 기초한 정치투쟁과 절대독립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51) 김권정, 『한국기독교 민족운동론과 민족운동』, 101.

52) 김상태, “일제하 신흥우의 사회복음주의와 민족운동론”, 『역사문제연구』 1. 1996; 김권정, 『한국기독교 민족운동론과 민족운동』, 106.

좌파'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192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실력양성론에 근거하여 문화운동을 펼쳤던 민족주의 우파 인사들 가운데 일제에 협력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다. 1920년대 초 물산장려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민족자본가 상층과 이를 대변하는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방향전환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먼저 민족자본가 상층은 총독부측에 지원 하에 경제적 보호와 성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족주의 우파세력은 우리 민족의 역량상 독립의 획득은 불가능하므로 자치운동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1920년대 중반에 들어서 민족주의 우파세력이 참정권과 자치론을 주장하자, 국내의 민족주의 좌파세력은 일제와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길을 모색하였다. 이들은 일제와 투쟁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와의 협동전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여 '신간회'를 창립하였다. 신간회는 중앙조직은 물론 전국적으로 지회를 만들어 개량주의자들의 자치론을 비판 저지하면서 민족단일당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독교 민족주의 세력은 1920년대에 민족주의 진영의 민족운동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였다. 1919년 3.1운동이후 1920년대 기독교민족주의자들은 정의와 인도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의 수립을 위해 정치적 투쟁과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1920년 초반 우파 민족주의 진영은 실력양성론에 근거하여 물산장려운동을 비롯한 자본주의적 경제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 세력은 개신교적 자본주의 경제윤리를 실천하면서 민족자본 육성 운동에 헌신하였다. 192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자치론을 둘러싸고 민족주의 우파와 민족주의 좌파로 분열되면서 안창호 계열의 일부 기독교 민족주의 세력은 민족주의 우파의 개량주의적인 자치론에 동조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기

독교 민족주의 세력은 민족주의 좌파에 가담하여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협동전선의 일환으로 신간회를 창간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사회개조론과 사회복음주의를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사회변혁운동에 참여하였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은 3.1운동 이후 정치적으로 정의와 인도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치원리를 민족운동의 기본원리로 삼아 경제적으로는 경제윤리를, 사회적으로는 사회개조와 사회복음에 입각한 사회변혁윤리를 추구하였다.

참고문헌

- 강만길, 『한국민족운동사론』, 서울: 한길사, 1985.
- 강만길, 『한국현대사』, 서울: 창비, 2006.
- 강영심, “조선물산장려운동의 전개와 성격,” 국사편찬위원회, 『국사관 논총』 47, 1993.
- 김권정, 『한국기독교 민족운동론과 민족운동』, 서울:국학자료원, 2015.
- 김명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정에서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의 역할”, 한국교회사학회, 『한국교회사학회지』(2018, 12) 제 51집, 107-141.
- 김백원, 문일평 등, 『12인등의 장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 서울: 한들, 1997.
- 김상태, “일제하 신흥우의 사회복음주의와 민족운동론”, 『역사문제연구』 1. 1996, 163-207.
- 김장수, “일제하 한국민족운동의 역사적 위상”, 『한국민족운동의 역사와 미래』, 서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9, 1-15.
- 김활란, “예루살렘대회와 금후 기독교”, 『청년』, 1928년 11월호.
- 노경채, “국외민족운동의 노선과 이념의 변화과정”, 『3.1민족해방운동연구』, 서울: 청년사, 1989, 488-518.
- 박찬승, “일제하 국내 우파진영의 민족주의”, 『한국근대사와 민족주의』, 서울: 집문당, 1997, 95-110.
-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4』, 서울: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 오미일, “1910-1920년대 평양지역 민족운동과 조선인 자본가층”, 『역사비평』, 1988 여름, 269-304.
- 오일환 외,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기독교』, 서울: 한중국제우호협력교류재단, 2019.
- 안창호, “우리 국민의 진화의 순서”(1916, 2), 『안도산전서(중)』, 서울: 범양출판사, 1990.
- 유준기, “일제하 한국민족운동에 있어서 민족주의 유형”, 『한국민족운동의 역사와 미래』, 서울: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9, 27-82.
- 유준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정통성과 그 의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서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9. 12., 5-19.

- 이대위, “사회주의와 기독교의 귀착점이 어떠한가?”, 『청년』, 1923년 9월호.
- 이대위, “사회혁명의 예수”, 『청년』, 1928. 6.
- 이상재, “上梓의 뜻은 如何하뇨”, 『百牧講演』 2, 박문서원, 1921.
- 이준식,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여성 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서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9. 12., 107-141.
- 양주삼, “예루살렘 회의의 특색”, 『기독교신보』, 1928. 7. 11.
-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 연구』, 서울: 혜안, 2001.
- 조기준,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 서울: 大旺社, 1977.
- 한철호 외 4인, 『한국사』, 서울: (주) 미래엔, 2010.
- 황선희, “한국민족주의운동의 역사적 평가-국내민족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의 역사와 미래』, 서울: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9, 245-288.
- 『동아일보』, 1920.8.23, 1921.9.3., 1922.7.22, 1923.2.9, 2.21, 1924.2.8., 1925.1.26, 1926.10.3., 1927.2.18., 1928.12.22.
- 『독립선언서』, 1919. 3. 1.
-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 서울: 한들, 1997.
- Robinson Micheal Edson, 김민환 역, 『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 서울: 도서출판 나남, 1990.
- Robinson, Micheal Edson, *Cultural Nationalism in Colonial Korean(1920-25)*,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8
- Kohn, Hans, *Nationalism : Its Meaning and History*, New Jersey, D. Van Nostrand Co., Inc., 1965.

논문투고일: 2019년 2월 28일

심사게시일: 2019년 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9년 4월 22일

• 국 문 초 록 •

이 글은 1920년대 민족운동과 그에 기독교민족주의자들의 윤리를 다룬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국내의 민족운동세력은 실력양성론을 주장하는 세력들과 ‘애국계몽운동’을 계속하면서 무장투쟁노선으로 전환하는 입장을 지닌 세력으로 분화되었다. 1920년대 들어와서 전자의 입장은 물산장려운동, 각종 학교설립운동, 자치운동 등을 주장하는 개량주의적 운동인 ‘민족주의 우파’로 발전하게 되었고, 후자의 입장은 대중에 기초한 정치투쟁과 절대독립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좌파’로 발전하게 되었다. 1920년대 국내외의 우파 독립운동세력과 민족주의 운동세력은 일제의 문화통치를 통하여 세력의 분화를 경험하였다. 이 분화의 과정에서 우파 민족주의 운동세력은 상호연관성과 연대를 통하여 각각의 국가건설론을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은 3.1운동 이후 정치적으로 정의와 인도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치원리를 민족운동의 기본원리로 삼아 경제적으로는 개신교자본주의 경제윤리와 사회개조와 사회복음에 입각한 사회변혁윤리를 추구하였다.

주제어: 1920년대 민족주의, 3.1운동, 기독교민족주의자, 국가건설론, 기독교윤리
